

## 현대 패션에 표현된 젠더(Gender)에 관한 연구

박 미 령

목포대학교 의류학전공

### A Study on Gender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Mi-Ryung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meaning and variety about gender expressed in modern fash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 typical masculine gender was authority, discretion as a result of heteropatriarchy focused on the western reason. It was conservative and the symbolic image type of the meaning excluded masculine sexual expression. Dress and its ornament was expressed as the style of straight silhouette, dark color, rough and stiff material. Second, the typical feminine gender was the symbolic image type of a mother and a wife defined relatively by man as a result of western heteropatriarchy and the image type which men regarded women as sexual objects. Dress and its ornament was expressed as the style of silhouette which let bodily curve out, light color, soft material. The most typical item is dress and suit. Third, androgyny has been described as the feminine gender of androgynous, which shows masculine image as the effect of feminism and social success of professional women. Dress and its ornament is expressed as the style of business suit, the symple of typical man's one. The masculine gender of androgynous is showed man's suit as silhouette that let bodily curve out, light color, exposure and soft material, which is the symbol of feminine dress, Fourth, unisex is the area of dress and its ornament used the sexless symbol which there has been no gender more because of the spread of sports and diffusion of leisure in life style.

**Key words :** gender, typical feminine, typical masculine, androgyny, unisex

## 1. 서 론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은 과거 서구의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도를 통한 남성은 공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여성은 사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즉 남성은 사회의 생산 영역의 주체로서 권위와 힘, 이성, 절제의 이미지를 상징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 의존의 존재로서 사회에서의 타자, 순종, 절제하지 못하는 감성을 가진 이미지로서 이 사회의 주체가 아닌 남성의 상대적 개념인 어머니, 아내, 처녀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18C부터 시작된 남녀평등을 위한 정치적인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은 70년대의 여권운동과 여성의 교육, 사회 진출의 일반화와 전문직으로의 성공적 진출로 이어졌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과 아울러 여성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이 요구되어졌으며, 복식에도 표현되었다.

여성의 역할이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까지 확대된 반면, 남성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무장된 동성애(gay) 운동의 결과로 예술과 대중문화에서 여성이

남성의 성적 응시의 대상이 되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규범을 무너뜨리며, 광고에 에로틱한 남성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이분법적 사고가 무너진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여성들이 팬츠를 누구나 할 것 없이 입게되었고, 남성들은 이제 머리를 길게 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가 하면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이득재, 1999). 이렇듯 남성들과 여성들의 외양이 상당히 변했으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회생활의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의복에 있어서의 그 의미는 여전히 성별을 구분 짓는 필수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현대의 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게이 운동 등이 여성과 남성들의 패션을 지배하는 금기사항(남성이 화장을 한다거나 치마를 입는 것)을 조금도 뒤흔들지는 못했다. 게다가 의복은 여전히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연상케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의 개념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형성하게된 젠더의 개념을 정신 분석학적인 측면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젠더의 표현양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현대패션에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기존의 남녀 이분법적인 성 표현이 아닌 양성적 특성이나 해체적 특성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이들은 제 3의 성 표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성차별이 없는 민주주의 제도로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도 가부장적 이성에 중심의 사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므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젠더의 경향은 이성에 중심의 전형적 남성성, 여성성과 동성애, 양성성 등의 경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젠더의 개념을 정신분석학적배경과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고찰하기 위해 철학, 미학, 문예 비평지 등의 각종 문헌과 관련논문을 분석하였으며, 패션에 나타난 젠더의 실증적 자료를 위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범위로 하고, 패션전문지(collezioni, WWD)에 게재된 사진자료와 기성복 catalogue, 인터넷자료(www.firstview.com)를 주로 분석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젠더의 개념

'젠더'라는 개념은 라틴어인 'genero'에서 파생되었다. 이것이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라틴어 'genero'에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Inge, 1999). 영어의 명사로는 남성, 여성 또는 중성이 젠더에 속해있으며(Simpson, 1989), 이는 원래 백과사전적 문법적 범주로서 남자와 연관된 장소, 시간, 도구, 일, 화법, 태도, 지각을 여자와 관련된 그것들과 구별한다. 따라서 젠더에 있어서 성의 구분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식적인 성(sex)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어진 성(gender)이 구분되어진다. 'sex'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눈에 보이는 차이, 출산 기능과 관련된 차이와 같이 생물학적 차이를 언급하는 단어인 반면, 'gender'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구분을 언급하는 문화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Judith Butler(1990)가 주장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는, 즉 sex와 gender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일반적으로 이성애로 적용되는 sexuality에 대한 상식적 이해로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2.2. 정신분석학적인 배경

정신분석학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Sigmund Freud가 고안해 낸 말이다. 정신분석학의 핵심 개념은 정체성이 성과 욕망에 관련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체성이 성욕과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을 주체라고 부른다. 그는 성적 정체성이 더 이상 선천적으로 이미 주어진 생물학적인 혹은 호르몬적 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유아기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억압한 결과라고 하였다. 성적 정체성은 서양의 고대 풍습에서 남성의 성기가 권력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는 펠러스(phallus)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로 설명되는데, 아동이 어머니를 유혹하려고 하는 소년의 다양한 유아적 시도가 아버지의 거세 위협에 직면하여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을 포기

하고 그 욕망을 아버지의 권위와의 동일시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아동을 가부장적인 사회적 가치로 끌어들이는 정점으로 소년이 사내다움의 특성을 획득하고, 소녀가 여성다움의 자질을 지니게 되는 지점으로 간주된다(박찬부 등, 1997)고 하였으며, 이후 동성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는 정상적인 이성애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즉 남성성이 주체, 능동적 펠러스의 소유를 의미하며, 여성성이 대상, 수동성, 그리고 펠러스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 차이를 Freud가 남성성기와 여성성기의 해부학적 차이가 야기하는 심리적 결과로 정의한 반면, Lacan은 성적 위치를 성차화(性差化)된 주체로서 사회 안에서 자리 잡게되는 것으로 정의했다(이소희, 2000). Lacan은 우리는 모두가 말하는 존재(speaking beings)이므로, 우리는 말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를 획득하게 되므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존재 방식을 여성적 존재 혹은 남성적 존재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Lacan의 작업이 가치를 지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성별이 가부장제 하에서 조직된다고 하는 메카니즘을 서술했기 때문이다(김해수, 1994).

그리고 Freud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남성이 '거세된' 어머니를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어머니를 거부하고 여성적인 소년, '펠러스를 지닌 여성'에서 타협적인 상을 찾았다고 하였으며,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긍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성애적)'와 '부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동성애적)'가 함께 있다고 가정하였다. Freud의 부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인식은 주체에게 정상적 성과 규범적 이성애가 자연스러운 본능처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형성과 sexuality가 당대문화가 요구하는 성제도와 성규범에 따른 사회적 질서의 방향에 의해 지워진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이에 대해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부장제 하에서 규범적, 이성애적 주체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기제라고 생각해왔으며 Freud의 아버지의 법과 Lacan의 상징계로 규정된 언어의 법체계가 이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성애와 동성애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1970년대에는 앤드로지니(androgyny)라는 개념이 미국의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유행했다. 양성동체는 Jung의 심리학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한 사람이 남성과 여성의 특질 모두를 가진 것을 나타내는 원형적 이미지이다. 여성의 경우에 이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성적인 측면(animus)과 하나됨을 의미하며, 남성에게는 그의 여성적인 측면(anima)과 하나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성적 정체성에 대해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설명된다.

### 2.3. 사회·문화적 배경

젠더의 차별성은 산업혁명 이후 이성애중심의 가부장제의 부르주아 계급에서 생겨났다. 사실상 그 이전의 계급사회에서는

성차보다는 계급의 차이의 표현이 문화에 더 큰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사치금지령에서 계급에 따라 복식을 금했던 예로서도 알 수 있다.

가부장제는 노동시장, 교육, 문화 등 사회활동 영역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에서의 종속적인 여성의 삶-가사, 육아, 성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성간의 결혼(그리고 그에 따른 동성에 공포증), 여성의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노동시장내의 배치에 의해 강화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 등 남성간의 사회 관계에 기반한 수많은 제도들은 가부장제의 주요요소로 지적된다(김정란, 1996).

남성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공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며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인 사적인 영역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념에 철저히 사회적 우월과 열등의 표시로 대립되었으며 남성성은 남성이 지배하게 된 사회에 대해 주체로서 권력의 상징, 육체보다는 이성적 상징으로 보았으며,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미 규정해 놓은 어머니, 처녀, 창녀, 마녀와 같은 상투형(stereotype)으로 재현되었으며(이호경, 2001), 육체적, 의존적, 감정적인 여성성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젠더에 대한 고정적 정체성이 1980년대에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치적 행동의 변화'를 주장한 페미니즘의 오랜 역사적 투쟁에서 초기 성별평등을 지향한 운동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전문직 여성으로의 성공은 여성성이 남성성의 특성과 같아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겨졌다.

이는 1980년대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서구문화를 주도해 온 남성중심의 이성주의적 담론을 해체하며, 자연적 성으로부터 문화적 성으로 시선을 돌려, 성의 단일한 대립구도 속에 집어넣는 태도를 거부하는 양성성을 통해 성차별주의의 극복을 시도한 것(김주영·양숙희, 1998)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전개과정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물려 의

복의 양성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이러한 의미는 신체에 문화적 의미를 두는 것으로 문화의 자연스러운 본질이다. 따라서 의복의 종류와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에 자연적 연결 고리가 없는 대신 문화적으로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인위적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의미하는 의복은 문화에서 문화로 다양하게 변하며 각 문화가 생산해내는 성의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의해 의복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강력한 페미니즘의 정신으로 무장된 1970년대 동성애 운동의 결과로 서구사회에서는 80년대에 이르러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며(고애란·남미우, 1998), 이러한 새로운 이론 경향은 '동성애'라는 범주 자체의 '사회적 구성', 즉 이성애를 특권화하려는 목적의 역사적 과정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현대에서는 다양한 성적 실현들이 부각되었으며 차이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재현되고 있고, 특히 여성성의 변화와 아울러, 1990년대의 남성성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남성성은 남성성에 좀더 여성스러운 특질 등이 더해져 사회·문화적 재현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성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표현되어졌다.

### 3. 현대패션에 표현된 젠더

현대패션에서는 단적인 양성의 대립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외양의 모습들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성간의 대립적인 구별이 최소화하듯이 정교하게 차별되고 있다. 따라서 gender의 정신분석학적인 측면과 사회 문화적 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 전형적인 남성성

현대에 있어서 추구되는 전형적인 남성성은 과거 이성애중심의 가부장제의 남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권위적이며 강건한 이



Fig. 1. PALZILERI Catalogue, '96S/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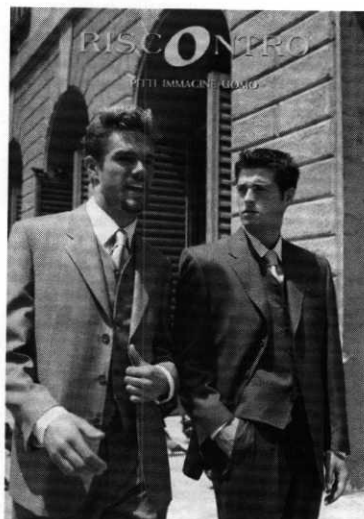


Fig. 2. RISCONTRO, poster, 99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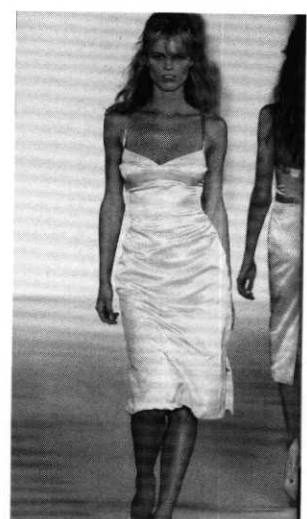


Fig. 3. Marco Jacobs, collections, 03S/S.

미지의 복식(Fig. 1)에서 페미니즘의 영향 등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남성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또한 남성성에 대한 정의는 의복을 통해서 기호화하였으며, 남성패션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착용코드와 그 착용코드를 무시하거나 파괴하였을 때의 제재가 여성보다 훨씬 강했었다(정인희 등, 2001).

남성에게 복식은 전문적 특성의 지표였으며 특히 비즈니스 수트(Fig. 2)는 권위 및 신분과 관련되었다. 남성들의 전통적 직장 세계에서, 수트는 진지함과 관련된다. '개인의 외모와 행실, 나아가 그가 가지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개인적 특성 사이에 유사함이 있는 한 이 유사함의 착용자의 지위와 연결된 도덕적 자질에까지 연장된다'고 한다(정인희 등, 2001).

Hollander(1994)는 수트가 여전히 성공, 남성다움, 성숙함의 잠재적 상징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즉, 디자인, 디테일, 착용법 등이 동시대의 포스트모던한 혼란 속에서 끈임없이 변화하는 동안, 남성성을 구체화하는 디테일은 다소 변화하였지만, 사회적 전통과 성공을 상징하는 형태와 의미는 본질적인 지속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는 수트가 나르시시적인 남성이 재창출되는 '남성성의 위기'속에서 전형적인 남성성을 지속시키는 방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정세희, 2000).

따라서 지금도 남성복으로 비즈니스 수트의 전형적인 형태는 19세기 댄디즘에 의해 정립된 신사복의 스타일에서 약간의 디테일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셔츠와 자켓, 그리고 바지이다.

실용성을 중시하고 장식성을 거부하는 현대남성복의 수트는 직선적인 실루엣에 어깨와 가슴을 넓혀 권위와 힘을 보여주며, 가슴의 장식 부분은 남성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유력한 기호로 해석되는 셔츠의 칼라나 타이를 통해 남성다운 성적 매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트는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사업가적',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힘을 가졌다.

### 3.2. 전형적인 여성성

이성에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남성의 상대성으로 결정

되는 여성성 즉 어머니, 아내, 처녀 등으로 규정되는 이미지는 수동성, 정숙함, 청순함 등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담론은 남성의 응시 대상으로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하며, 여성에게 육체의 고정된 틀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이미지는 풍만한 가슴, 가는 허리, 긴 머리, 하얗고 매끄러운 흰 피부 등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20세기 페미니즘운동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복식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1960년대 이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팬츠를 입으면서 결정적인 혁명을 겪었다. 그러나 Lipovetsky의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985년 여성들의 팬츠는 1천9백5십만장이 팔렸지만 드레스와 스커트는 3천7백만장이나 팔렸다고 했다.

즉, 스커트와 드레스가 훨씬 더 팔렸다. 이는 팬츠가 여성들의 전형적인 의상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적인 선택사항으로서 전통적인 옷과 나란히 나타나는 것이다. 외양의 영역에서 여성의 매우 근본적인 목표들-유혹과 변형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패션에 의해 늘 갱신되는 열린 '전통'이기 때문이다(이득재, 1999).

전형적인 여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Fig. 3, Fig. 4)디자인은 신체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루엣이나 스커트, 부드러운 소재, 밝은 칼라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현대패션에서는 페미닌 룩(feminin look)으로 불려진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의 이러한 디자인의 선택은 드레스와 화장을 통해 옷에서의 선택을 의미하며 과거 가부장제에서 표현된 복종이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자율성이 커지기를 열망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열망은 개인의 외모를 수정하려는 여성의 정열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선택의 기회를 즐기는 오늘날의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3. 앤드로지니

복식에 있어서 앤드로지니 의미는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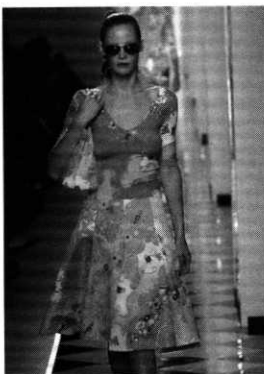


Fig. 4. Marco Jacobs, collections, 03S/S.



Fig. 5. Donna Karan, "Presidential" campaign in 1992, WWD CENTURY, 1998, p.194.



Fig. 6. Giorgio Armani,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p.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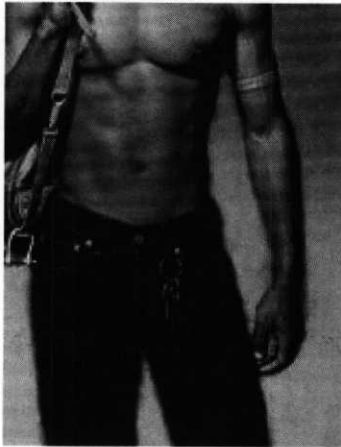


Fig. 7. Levi's 광고사진, 03s/s.



Fig. 8. VOV 광고사진, 94f/w.



Fig. 9. Dolce&Gabbana, collections, 01s/s.

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성의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이다(김경옥·금기숙, 1998).

이러한 룩(look)은 여성의 육체에 남성복식 요소를 남성 육체에 여성복식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좀 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전문직 증가와 직장이라고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여성중역의 책임이 당연시되면서, 현대패션에서 여성에게도 공적인 영역에서 남성에게 요구되어졌던 '사업가적',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힘이 요구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의 육체에 여성복식의 요소가 도입된 계기는 70년대 팝 뮤직스타들인 David Bowie, Boy George 등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젠더의 탐색에 대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그들의 과장된 여성스러운 모습, 화장, 머리모양, 스커트의 착용 등은 남성다움에 대한 표현의 관습에 도전한 것이었으며, 이는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 하위문화집단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천박하고 자기 도취적인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체통과 권위의 속성을 수정한 새로운 남성성의 의복행동 코드는 여성성과는 다르게 남성의 권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일반적인 남성 패션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현대 패션에서 실질적으로 남성복에 여성복 요소가 도입이 되었던 커다란 계기는 9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과 연계된 게이 운동의 결과와 세계적으로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많은 남성 디자이너들이 게이인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이민선·김민자, 2001).

**여성의 앤드로지니** : 현대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제도의 변화는 70년대의 생물학적 성차 보다는 그 차이를 만드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시하는 여권운동과 여성의 교육, 전문직으로의 성공적 진출의 결과로, 여성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은 남성과 같은 역할이 요구되어졌다. 그것은 남성성으로 보여지는 능동성, 권위, 존경의 이미지로서 여성복에는 양성성의 이미지인 앤드로지니어스 룩, 파워수트 룩, 비즈니스 수트,

테일러드 수트로 재현된다. Katherin Hamnet은 1986년 자신의 "파워 드레싱(power dressing)"이라고 명명된 컬렉션에서 스마트 수트(smart suit)라는 오피스 드레스(office dress)를 여성의 지배와 성의 지배라는 개념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는 80년대의 기억될만한 사건이었다. Evans&Thornton은 그 영향에 대해 "이 스타일은 유니폼의 익명성을 나타내주지만 동시에 간소함과 우아함을 결합시킴으로서 댄디함이 나타나며 초연한 자부성을 나타내준다."고 하였다(Arnold, 2001).

이는 과거 여성이 단순히 남성복을 걸침으로써 남성성의 기표만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초반 부르주와 남성복이 가졌던 지배계급으로서의 댄디함 즉 권위, 지배, 절제의 의미가 80년대 캐리어나우먼의 힘과 영향력이 이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보여지는 여성의 테일러드 수트는 여기에 댄디함에 대한 청교도적인 금기를 깨뜨리고 여성의 섹시함까지 가미하게되어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인 능동성, 권위, 여성성의 기호를 가진 의복이 되었다.

Donna Karan의 세련되고 지적인 여성 주지사 모습의 광고 사진(Fig. 5)에 나오는 비즈니스 수트의 모습과 Armani 여성 고용주의 이미지를 광고하기 위한 사진(Fig. 6)에서 그러한 점을 더욱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복식은 전형적인 남성성의 기표인 비즈니스 수트와 같은 형태로 직선적인 실루엣에 어깨와 가슴을 넓혀주어,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Y자 실루엣, 신뢰와 침착함을 나타내는 어두운 색, 무늬가 없거나 줄무늬의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디자인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모습이 되도록 하였다.

**남성의 앤드로지니** :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던 문화 내에서는 권력이 탈 중심화 되기 시작하였고, 보는 주체가 되지 못했던 여성이나 동성연애자들이 남성을 예로 택한 대상으로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이민선·김민자, 2001).

특히, 80년대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무장된 게이운동은 예



Fig. 10. Unionbay 광고사진, 98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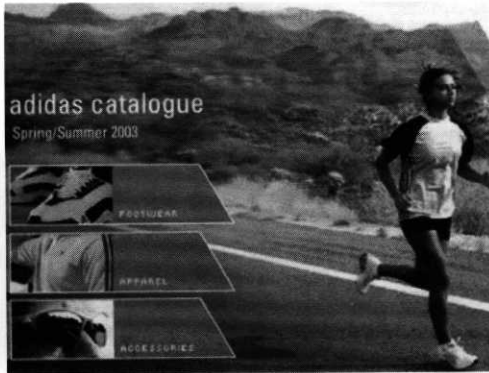


Fig. 11. Adidas 광고사진, 03s/s.



Fig. 12. Benneton 광고사진, 03s/s.

술과 대중문화에서 응시의 전통적인 규범을 무너뜨리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광고에 에로틱한 남성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이미지(예를 들면, 리바이스 청바지에 나오는 (Fig. 7)는 게이의 에로티시즘에서 끌어온 것이다. 남성이 자신의 몸을 볼거리로 내놓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전통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었다(윤길순, 2000). 즉, 전통적으로 성적 응시의 대상이었던 여성과 같이 남성도 성적 응시의 대상화가 된 것이다.

최근 남성패션에서 많이 보여지는 변화로 남자 모델이 미소년화 되어지는 경향이나 동성애(프로이드가 말한 남근을 가진 여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는)를 의미하는 듯한 광고사진(Fig. 8), 남성복의 많은 부분들이 몸을 노출하거나 여성복에서나 사용되는 소재, 칼라, 몸에 꼭 맞는 스타일(Fig. 9) 등이 유행하는 경향이 그렇다.

그러나 현대패션은 다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스타일이 처음에 지녔던 저항적 의식과 의미 즉, 파트너 선택이나 집단 내 의사소통의 중요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동성애 집단 의복과 외모 장식의 의미는 사라지고, 단지 소비자를 유혹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유행 트렌드로 창조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중문화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게되었다.

### 3.4. 유니섹스

유니섹스(Unisex) 모드는 남성복에 여성의 기표를 사용하거나 여성복에 남성의 권위나 성적 상징의 기표를 사용하는 앤드로지니와는 구별되게, '무성화의 경향'으로 남녀가 같은 디자인을 입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960년대 말경 등장하였으며, 남녀 양성의 구별이 없는 의복의 새로운 형태로 셔츠, 바지, 재킷 등으로 나타난다. 성역할 차이가 분명하던 60년대에 유니섹스 모드는 히피들이 중성적 이미지로서 남성복을 근간으로 하여, 똑같은 디자인을 남녀가 같이 입을으로서 기존의 가치체계와 이분법적 개념을 해체시키며(안소현 · 이경희, 2000), 기성사회에 반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담긴 것이었다. 즉 초기 스타일은 히피들에 의해 입혀졌던 블루진과 꽃 문양의 면직물 셔츠, 그리고 남녀 모두 긴 머리의 스타일이었으며, 이들은 하나의 하위문화를 이루었다(유송옥 등, 1996).

초기 히피에게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있었던 유니섹스 스타일은 현대 패션에서 두 가지 분야로 발전되었다. 하나는 실용성과 함께 대학생을 중심으로 남녀구분 없이 남성성에 가까운 셔츠와 면바지 스타일인 캐주얼(sports casual)로 발전하였으며 (Fig. 10), 다른 하나는 성, 계급, 민족성의 구분보다는 젊음, 잘 단련된 육체미를 표현하며, 오직 전문적이며 과학적 기능성을 위한 스포츠 웨어(active sports wear)의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Fig. 11).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실용성, 패스트푸드(fast-food), 여가활동을 위한 스포츠 열풍의 미국화 된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스포츠 웨어의 세계적 유행은 패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유니섹스 모드의 아이템(item)인 티셔츠(Fig. 10)는 디자인과 색깔의 다양한 변화와 프린트무늬, 장식까지 더해져, 구하기 쉽고, 순간 순간 변하는 트렌드를 표현하는 패션의 지표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대 패션의 대표적 상품이 되었다.

## 4. 결 론

패션이 육체를 재현하는 분야로 지목되면, 그것은 지배문화가 어떻게 gender를 구성하는가, 그리고 재현에 있어서 gender는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20세기 남성과 여성이 입고 행동해야만 하는 방식을 규정짓는 gender를 정신분석학적 측면과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이성애의 남성과 여성, 양성성인 양성화된 여성, 남성, 그리고 성구별이 없는 unisex로 구분된다.

첫째, 이성에 남성의 전형적인 남성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권위적이며 강건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는 비즈니스 슈트로 표현된다. 직선적인 실루엣에 어깨와 가슴을 넓혀 권위와 힘을 보

여주며, 가슴의 장식 부분은 셔츠의 칼라나 타이를 통해 남성다운 성적 매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트는 현대사회에서 아직까지 '사업가적',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힘을 가졌다.

둘째, 전형적인 여성성은 남성의 상대성으로 결정되는 여성성 즉 어머니, 아내, 처녀 등으로 규정되는 수동성, 정숙함, 청순함의 이미지로, 디자인은 신체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루엣이나 스커트, 부드러운 소재, 밝은 칼라 등으로 현대 패션에서는 *feminin look*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androgyny*는 여권운동과 여성의 교육, 전문직으로의 성공적 진출의 결과로, 여성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은 남성과 같은 역할이 요구되어졌다. 보여지는 복식으로는 전형적인 남성성의 기표인 비즈니스 수트와 같은 형태로 직선적인 실루엣에 어깨와 가슴을 넓혀주어,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Y자 실루엣, 신뢰와 침착함을 나타내는 어두운 색, 무늬가 없거나 줄무늬의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디자인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모습이 되었다. 남성의 *androgyny*는 80년대의 *gay*운동과 세계적 *gay* 디자이너들의 영향으로 남자 모델이 미소년화 되어지는 경향이 나, 남성복의 많은 부분들이 몸을 노출하거나 여성복에서나 사용되는 소재, 칼라, 몸에 꼭 맞는 스타일등이 유행하는 경향으로 성적 응시의 대상이 되고자 하였다.

넷째, 유니섹스 의복은 초기 정치적 의미에서 히피들이 남녀 구분 없이 입었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남녀 구분 없는 실용성의 *sports casual*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실용성, *fastfood*, 여가활동을 위한 스포츠 열풍의 미국화 된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스포츠웨어의 세계적 유행은 성, 계급, 민족성의 구분보다는 젊음, 잘 단련된 육체미를 표현하며, 오직 실용성과 기능성을 위한 *active sports wear*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애란·남미우 (1998), 성인 남성의 성격지향에 따른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4), 460-468.
- 김경옥·금기숙 (1998)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6, 239-262.
- 김정란 (1996) 푸코 권력 이론의 여성 해방적 함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양숙희 (1998) 현대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현상 (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2(1), 3-7.
- 김해수 (1994) "알기쉬운 자끄라깡". 백의, 서울, p.182.
- 박찬부·고갑희·김보현·김활·신명아·이경순·이소영·이정호·정정호·태해숙 (1997)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한신문화사, 서울, p.211.
- 안소현·이경희 (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 개념 변화추이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4(5), 86-97.
- 유송옥·이은영·황선진 (1996) "복식문화". 교문사, 서울, p.256.
- 윤길순 (2000) "포스트페미니즘". 김영사, 서울, p.80.
- 이득재 (1999) "패션의 제국". 문예출판사, 서울, pp.184-189.
- 이민선·김민자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I). *한국의류학회지*, 51(1), 163-174.
- 이소희 (2000) "라캉과 포스트페미니즘". 이제이북스, 서울, p.24.
- 이호경 (2001) 젠더 분석틀로 본 브레히트의 여성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세희 (2000)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Gender) 정체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희·함연자·정수진·김경원 (2001) "패션의 얼굴". 푸른솔, 서울, pp.309-340.
- Anne H. (1994) "Sex and Suit: History of Modern Clothing". Alfred A. Knof, NewYork.
- Arnold R. (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I.B.Tauris & Co Ltd, Great Britain, pp.105-106.
- Inge S.(1999) "Gender". Eine nützliche kategorie die Literaturwissenschaft In: Zeitschrift, p.28.
- Simpson J.A (1989)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427.

(2003년 5월 27일 접수)